

# “뺨을 사람 없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갈 곳 잃은 표심

#. 집권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형수 욕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배우(김부선 씨) 스캔들 등으로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 받았다. 최근에는 변호사인 이 후보가 과거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조카를 변호했고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확실한 지지 후보 없어 ‘황야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응답 유보 높아 2030 “후보들 비리 의혹 너무 커” 비수도권 청년 공감 못할 정책 많아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총장직을 내려놓고 바로 대선판에 뛰어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균열을 냈다. 또한 윤 후보의 총장 재직 시절 야당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 당내 경선 기간 여론을 악화시킨 후보 본인의 ‘전두환 옹호 발언’, ‘개사과 논란’ 등 구설에 휘말린 점, 부인과 장모의 의혹 등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를 안고 있다.

흔히,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부른다. 여론 조사상 대선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조사됐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한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피로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후보 본인 때문에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에게 확실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황야의 대선 정국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2030 청년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지적이 나온다.

### ◆ 높은 비호감도, 선호 유보하는 응답 2030 세대에서 높아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3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응답률 15%,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 나타난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비호감도가 63%(호감도 32%), 윤 후보는 56%(37%)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는 18세와 29세 사이에서 66%, 30대에서 68%의 응답자가 ‘호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도 각각 69%와 66%의 비호감도를 기록했다.

정을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9일부터 11일에 조사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선 이 후보가 18~29세와 30대에서 각각 43%, 38%를 기록하고 윤 후보가 39%, 57%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2030 세대는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을 유보하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18세에서 29세와 30대에서 응답을 유보하거나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69%와 51%로 나타났다. 40대는 40%, 50대는 19%, 60대는 21%로 조사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 ◆ 지지 결정 못 한 20·30 청년, 구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아직 투표 결정을 하지 못한 2030 청년은 후보들의 비리 의혹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공무원에 합격해 임명을 요구한 31세 A씨는 “이 후보는 개인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과연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의문이 강하게 들고 윤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 살

아와서 국정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서 일하는 정성호(31)씨는 “일단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이 후보는 국정 능력은 있는 것 같으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 같다는 감정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부터 여배우 스캔들, 조카 변호, 혜경궁 김씨 등 이렇게 논란이 많은 후보는 처음 본다”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 정 씨는 “조국 사태로 뺨 맞았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잘해서 대선 후보가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도 했다.

직장인 주영실(28)씨는 “두 후보 다 뽑기 싫다”며 “윤 후보는 의원을 하다가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급부상해서 입증된 것이 없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경솔해서 믿기가 힘들다”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자기 돈도 아닌데 지역 화폐 같은 현금성 지원으로 인기를 얻어서 대선 후보까지 될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은민 청년기후간담회 활동가는 표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기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투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활동가는 “저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둘 다 별로이고 지금의 사회 문제들이나 현안들을 타개하고 국정을 해치워 갈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본다”며 “동력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활동가는 “시민들이 타개해 나가야 하는 갈등 상황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압력을 더 건 설적으로 잘해나가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정

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20대들이 공정을 외치니까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에게 희망이 있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10~20%의 청년이 아니라 70~80%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들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출범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에서 간사를 맡은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대선 후보의 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 대표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대학교 4학년을 나온 청년, 수도권에 사는 청년에 집중돼 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공감하기 힘든 정책들이다”라며 “10~20%의 청년이 공감하는 것이 아닌, 70~80%의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인재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의 관심 자체가 특정한 청년들에게 있음을 지적한 진 대표는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노동 시장의 안정성, 부동산 시장의 투기 근절 대책이 아닌 주거 불안 해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수출입은행, 석유공사에 10억달러 지원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협약

### 국내외 석유자원 확보 사업 협력 해외차입 의존도 낮춰 비용 절감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석유공사와 ‘석유 자원안보 강화 및 친환경 신에너지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수은은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사업을 위해 석유공사에 총 10억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청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석유자원 확보 사업 ▲비축유 도입 및 비축기지 건설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해상풍력단지, CCUS 등) 등에 수은이 총 10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다. 석유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차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추진하는 해상풍력단지 사업과 CCUS 사업 등 석유공사의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 수행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증권사 3분기 순익 2.5조... 10.5% ↑

투자은행·자기매매부문 수익 증가 수수료 수익 390억 증가... 4조1913억

국내 증권사들의 올 3분기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1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국제금리 상승 등 영향에도 기업공개(IPO) 시장 활황과 시장변동성에 대응한 헤지 운용 등으로 투자은행(IB)과 자기매매부문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 중 증권사 58곳의 당기순이익은 2조5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조2775억원)와 비교해 10.5%(2387억) 증가한 것이다.

3분기 수수료 수익은 전 분기보다 0.9%(390억원) 증가한 4조1913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탁수수료는 6.7%(1343억원) 감소한 1조8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2분기 1023조원이던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3분기 913조원으로 10.8%(110조원)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은 8.8%(60조원) 증가한 683조원이었다.

반면 IB수수료(1조3746억원)와 자산

관리 수수료(3666억원)는 각각 7.6%(966억원), 10.3%(341억원) 늘었다.

자기매매손익은 전 분기와 비교해 100.5%(9038억원) 급증한 1조8030억원을 기록, 증권사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주식관련 이익은 3704억원으로 2692억원 증가한 반면, 채권관련 이익은 5687억원으로 432억원 감소했다. 2분기 1861억원에 그쳤던 파생관련 손익은 6778억원 급증한 8639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증권사 판매관리비는 2조9168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2%(1914억원) 감소했다.

3분기 말 전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6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629조8000억원) 대비 25조3000억원 증가했다. 현금 및 예치금이 15조원 늘고, 미수금도 6조7000억원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대응 정책의 정상화, 코로나 이후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가 증권회사의 수익성,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NH농협생명 RPA로 업무 4만시간 절감

NH농협생명이 업무 자동화 가속에 박차를 가한다.

NH농협생명은 지난 6개월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봇 프로세스자동화) 2단계 프로젝트 실시 결과 31개 업무에서 연간 업무량 4만4087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수행하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복제해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RPA 기반 업무자동화가 구축되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경감시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오류 가능성도 제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자동화다. 검증대상이 150만건 이상으로 방대하고 복잡해 샘플검증을 하던 업무를 RPA 도입으로 전수검증으로 변경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대응력도 대폭 강화했다. 그 밖에도 ▲정보보호시스템 일일 점검 ▲가입설계 시 해지환급금 정합성 검증 등의 업무에 적용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